

<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토론 요지>

포스코경영연구원 안윤기

- **WHO의 미세먼지 권고안,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, 에너지 및 자원문제 등을 고려할 때, 분산전원(망)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전력수급 체제가 될 전망이다**
 - 특히, IoT, Bigdata 분석 기법, AI 등 기술 또는 기법을 접목할 때, 저탄소 에너지원에 기반한 분산전원의 수급예측, 제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, 안정적이면서 적기에 전력을 수급할 수 있고 또한 저탄소 및 친환경 이슈 해결에 도움에 될 수 있다고 판단됨.
 - 이는 UN이 1987년 제시한 미래성장 이념이 경제, 환경, 사회를 아우르는 "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"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음.
- **글로벌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혁신적인 ICT 기법 등을 고려할 때,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시장에 현재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**
 - 과거 안정적인 전원의 확보 하, 경제성 중심의 성장패러다임에서 전력 수급체제, 특히 공급독점체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임.
 - 특히, 전력수급예측, 제어 등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음.
 - 덕분에 자원을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됨.
 - 그러나, 지금은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, 특히 전력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.
 - 또한 전력수급 예측, 제어, 설계 기술력이 과거 대비 한층 향상되었음.
 - 새로운 여건 부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**저탄소 및 친환경이라는 위협요인과 높은 ICT 기술력을 고려하여, 중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을 지금 보다 더 자유화할 필요가 있음.**
 - '자유화 = 전력가격 상승'이라는 틀에서 벗어나, 전력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.
 - 전력시장이 자유화 된 미국, 일본은 전력사 간의 경쟁속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.
 - 특히, 우리와 에너지 수급패턴,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을 잘 연구하고 벤치마킹한다면 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.